

08

세미나

1 「2020 회계·세무 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」 국가회계 세션 결과보고

가. 개요

1. 일 시 : '20. 06. 27.(토) 10:40~12:10
2. 장 소 : 인천 송도 컨벤시아 308호
3. 사회자 : 김봉환 교수(서울대학교)

나. 발표 및 토론결과 요약

1) (주제 1) OECD 연금충당부채 현황 및 쟁점

(한소영 국가회계팀장,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)

□ 주요 발표내용

- OECD 회원국의 연금충당부채 현황과 쟁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무원, 군인 연금부채의 규모와 산정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 제시
- 37개 OECD 가입국 중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국가는 13개국으로, 본 연구에서 주요 5개국인 미국, 영국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를 중심으로 상세 분석을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의 국제적 정합성 확인
- 더불어, 연금충당부채 미인식 국가 조사 등을 통해 연금충당부채 관련 논란을 해

결하기 위해서는 회계 제도적 측면이 아닌 거래 실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

□ 주요 토론내용

○ 노희천 교수(숭실대학교)

- 후속 과제로 연금제도 개혁 및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고려 등을 포함한 제도적 차원의 확장된 접근법 제안
- '기금별 재정운영결과 현황' 등 현행 발표되는 연금관련 재무정보를 정리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'실제 연금지급을 위해 투입되는 금액' 등 연금 재무정보를 발간예정의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

○ 안성윤 교수(카톨릭대학교)

- 연금 관련 이슈는 회계 제도적 측면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관한 것임에 공감하며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구축된 발생주의 목표에 맞게 실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국민적 관심을 받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회계를 통해 현 상황을 조명해야 하며, 결산서의 목적이 국제적 정합성인지 국내에서 요구하는 국민적인 기대감 충족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

2) (주제 2)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

(박윤진 재정통계팀장,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)

□ 주요 발표 내용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민간수준 이상으로 회계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제도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
- (회계역량 강화)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회계직렬을 신설하고 회계책임자 및 담당자의 회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(회계책임성 제고)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시하고, 감사전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. 또한 경영진과 내부감사의 회계책임을 강화하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함
- (회계감독 강화)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,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가 필요하며 회계감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회계감리제도 도입이 필요함

□ 주요 토론내용

- 윤성만 교수(서울과학기술대학교)
- (회계역량 측면)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회계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고 회계자격보유자를 지표화하여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(회계감독 측면)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 시간과 보수가 상대적으로 상장회사보다 낮기 때문에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며 지정감사인제 도입도 필요함

○ 이상열 교수(한양대학교)

- 공공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회계제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공감하며, 공공기관의 회계특성이 민간기업의 회계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
- 공공기관의 회계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인회계사법」 등 다양한 규정들이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법체계 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보충될 필요가 있음



<통합학술대회(06.27.), 송도 컨벤시아 308호>